

성북동 마을 잡지 9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차례

- 3p **시간 속의 집, 디미방**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 최성수
- 6p **성북마을살이 4년 반, 앞으로는 몇 년일까?**
지역공동체 특집 / 황선영
- 12p **낮선 만남의 시작, 마을여행**
지역공동체 특집 / 김정서
- 22p **한양도성 혜화문 밖 첫 마을**
성북동 마을여행 - 골목탐방 / 장영철
- 29p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35호 '성락원'을 찾아서**
성북동 문화재 답사기 / 박진하
- 46p **어딘가에 아무 곳도 아닌**
성북동 문화 아지트 / 최영환
- 54p **정종과 함께 성북동에서 눈감은 홍보 염상섭**
우리동네 문학살롱 / 김지애
- 58p **성북동 아름다운 지구인, 녹색연합입니다.**
우리동네 NGO NPO / 박효경



- 62p **17717,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보는 사이**
우리동네 무중력지대 / 장혜영
- 74p **북정마을을 담다**
우리동네 작가를 소개합니다 / 임상희
- 82p **성북동 수입멀티샵 garage116-1**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조경미
- 87p **성북동 좋은 선생님**
주민 인터뷰 / 윤경미
- 92p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주민 기고 / 곡경문
- 97p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 후기 / 김기민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시간 속의 집, 디미방

최성수

후두둑 빗방울 사내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 가게, 조선시대 음식 책 이름을 닮은 '디미방'
오래 고인 우물처럼 가라앉은 자리
지난 겨울 함박눈이 힐끗 사내에게 주었던 눈길을 거둔다
순간, 뚝배기 속 뜨거운 국밥도 숨결을 멈춘다
느릿느릿 깎두기 보시기를 밀어주는
주인장 손길은 낡은 축음기의 바늘처럼
흔들린다

지나가던 늙은 총각도
늦은 잔업에 시달린 노동자도
생의 뜨거운 국밥 한 숟가락을 뜨는 곳
성북동, 천천히 걸어 다다르는 곳의 허리 쭈
천 년 전부터 자리 잡고 시간 여행자를 기다리는
그 국밥집은 늘 고여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울려
막걸리잔을 들고 국밥을 먹는 곳

성북동의 술한 골목과 지붕 낮은 집들처럼,
혹은 간송미술관이나 길상사처럼
오랜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디미방,
지워지고 사라져도 늘 그 자리에서
국밥을 말고 술잔을 내밀
그리운 기억 속의 옛 집은
오늘도 우두커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최성수는 시인이며 청소년 문학 작가이다. 그동안 시집 <장다리꽃 같은 우리 아이들>(작은 바람 하나로 시작된 우리 사랑은)<천 년 전 같은 하루>(꽃, 꽃잎)을 냈으며, 청소년 소설 <비에 젖은 종이 비행기>(꽃비)<무지개 너머 1,230마일>을 내기도 했다. 성북동에 50여년을 살다 지금은 고향인 강원도 안흥 보리소골로 귀향하여 고향과 성북동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북동이 사람들의 행복한 꿈을 담아내는 터전이기를 꿈꾸고 있다.



성북마을살이 4년 반, 앞으로는 몇 년일까?

황선영

성북동에 살기 전에는 강서구 화곡동과 노원구 상계동에서 2~3년씩 살았다. 그 전에는 대구에 있었다. 우리 부부는 십여 년 전, 결혼과 함께 서울로 옮겨온 '지방 이주민'이다. 굳이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건, 그만큼 지방과 서울에서 사는 것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데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겪어 보면 이 차이가 참 크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마을에 살고 있지는 않은 것과, 마을살이를 하는 것은 서울과 지방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화곡동이나 상계동에서 살던 시절, 나 또는 우리 부부는 마을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도 동네 친구도 없었다. 살다 보면 그 동네에 첫 발을 딛게 해 준 공인중개사로부터 시작해 얼마간 낯을 익힌 식당, 슈퍼마켓, 세탁소, 헬스클럽, 커피집 등의 사장님이 몇 분 생길 뿐이다. 그 시절 나에게 '동네'란 어느 무료한 저녁에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까'같은 용례 외엔 쓸 일도 없는 말이었다. 사실 성북동에 와서도 마을살이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왜 성북동일까? 가끔 생각해 본다. 물론 화곡동이나 상계동에 살던 시절엔 마을살이나 마을만들기 같은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때 그 말이 있었다 한들 크게 달라질 건 없었으리라. 내가 마을의 일부라는

생각도, 적극적으로 거기 속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단지 2~3년 머무르다 가는 세입자일 뿐이며, 한 곳에 계속 살 수도 없다. 내 삶이 나의 의지가 아니고 오로지 남, 그러니까 집주인의 의지에 달린 상황에서 살고 있는 마을을 낯게 만든다거나 마을에 정을 쌓는 것이 대체 내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그런 점에서 성북동에 들어올 때는, 몇 가지의 인연과 행운이 동시에 따라온 것 같다. 장마철에 비가 썰 정도로 벽이 얇고 부실하게 지어진 집에서 심한 결로로 고생하다가 집주인의 모르쇠에 지쳐 노원구를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지하철 4호선 라인을 더듬어 아래로 내려오던 중에 성북동을 발견하여 이 동네로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나는 이미 동네에 친구가 있었다. 당시 카페 티티카카를 운영하고 있던 김기민 대표와 블로그 이웃이었던 인연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동네 친구와 단골카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의 카페 티티카카, 지금의 동네공간을 기점으로 많은 인연들이 생겨났다. 성북동에서 처음으로 세든 집이 한옥인 것도 큰 몫을 했다. 한옥살이는 새롭고도 색다른 경험이어서 추위와 불편을 안겨 주었지만 살림살이의 크고 작은 고생들을 갚아줄 만한 보상도 해 주었다. 여름이면 담을 뒤덮을 만큼 피는 장미와 향기로운 백합도 그렇지만, 여럿이 모여 함께 시끌벅적 고기를 구워먹고 만두를 빚기에 충분한 넓은 마루가 가장 큰 보상에 속했다. 성북동 한옥에 호기심을 보이는 친구들,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이 우리 집의 넓은 마루를 놀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또 찾아와 주는 것이 그저 즐겁고 재미있었다. 그렇게 많은 손님을 치러 본 적은 결혼해서 내 살림을 차린 후에도, 또 그 전에도 없었다.

성북동 한옥, 그리고 카페 티티카카라는 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 삶에 변화로 흘러들었

다. 나를 둘러싼 환경도 관심사도 변했다. 공동체 구성이 오랫동안 내가 가졌던 막연한 바람이자 지향이기도 했지만 마을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난 몇 년 간 ‘동네 친구’와 함께 조금씩 참여한 일들이 마을 사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다니던 의료생협이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나도 사업지기가 되어 본격적인 공동체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마을살이전문가’들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말이다.

성북마을살이 4년 반, 나의 직함도 많아졌다. 삼십육짬육도씨 의료생협협동조합의 마을사업지기,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운영위원, 성북동 마을계획단원, 그리고 올해 더해진 성북구 마을지원활동가까지. 이제 마을공동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마을에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지는 밤낮 연구하고 실행해야 하는 자리에까지 와 버렸다.

‘활동가’의 다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불구덩이에 발을 넣었다 - 힘들고 돈 안 되는 일만 한다고 농담을 던지지만, 나는 만족스럽다. 내 곶냥에 뭐 다른 일을 했다고 해서 큰돈을 벌거나 성공했을 것 같지도 않고, 마을이라는 작은 단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구상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하나하나가 즐겁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결 편하다. 사람을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속 취급하는 현대 사회에서 적어도 이곳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작게나마 눈으로 보게 해 주기 때문인 것 같다.

마을살이에 조금은 익숙해진 요즘, 새로운 고민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마을만들기에 대해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듣는다. 결국 마을만들기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살기 좋은 마을은 누구를 위한 마을일까?

내가 성북동에 들어와서, 여전히 주거가 불분명한 세입자의 처지임에도 마을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이 연결될수록 혼자서 해결하기는 벅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조금은 더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내 오랜 믿음이고 실제의 경험이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 안에서도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행정 시스템이 미처 돌보지 못한 틈새를 매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주민들이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또 누군가를, 작은 삶의 문제들을 놓치고 지나 않을까? 내가 지켜본 바로는 많은 마을 사업들에서 대상으로 삼는 ‘주민’들은 4인 기준의 소위 ‘일반적인’ 가정,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현재의 사회 시스템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어렵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반면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마을이 그러한 주민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리적인 측면에서 우선 순위에 있는 주민들만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더욱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을 엮어주는 일은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는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서 혼자 사는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세입자들, 혼자 사는 여성들, 독거노인들인데 마을공동체가 이들의 정착이나 안정된 삶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또는 마을 사업이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넘어서 마을 바깥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시행될 수 있을까? 학기 중에만 지역에 머무르는 대학생들은 주민에 속하지 못할까? 성장해서 타지로 갈 청소년들을 계속 마을살이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젠트리피케이션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나 원룸을 떠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삶에 마을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정상(일반적으로 생각하는 4인 기준의) 가족’이 아닌 다른 가정, 새로운 형태의

가정에 대해서는? 세대 간 연결에 관해서는?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마을공동체는 타인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살기 좋은 성북 마을”이라하면 과연 누가 살기 좋은 것일까? 집 주인이 아닌 세입자들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알리면 누구에게 좋을 까? 마을의 이익은 외부인의 타자화 - 즉, 마을 바깥의 사람들을 세입자나 관광객으로 설정함으로써 담보되는 게 아닐까? 이와 마을의 벽화 문제라든가 망원동, 해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처럼 선의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를 낳는 상황 앞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는 마을이 아직까지 공동체의 기준으로 묶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정된 주거가 없고 소속감이 없어서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더욱 연결고리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네’에 살고 있지만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당사자들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축제 소식은 알아도 당장 우리 마을의 축제 소식은 모르고 사는 것처럼, 내가 사는 바로 옆에서 나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게 느껴진다.

나는 특히 청년 당사자들이 마을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사회가 떠넘긴 많은 부담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정작 여러 가지 지원에서는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계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에게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부터 찾아보기를 권한다.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말고는 거의 갈 일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들러서 벽에 붙여놓은 많은 안내문들을 보자. 내 삶에 해당되는 정책이나 교육, 지원 등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행

정기관도 점점 그 계층을 인식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사업을 구상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할 수 있다. 내 마을 살이가 한 명의 친구에게서 시작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종적으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마을살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황선영은 문화 기획을 업으로 삼으며 살았다. 성북동에서 곱신랑 그리고 반려견 달고나, 귀동이와 함께 알콩달콩 살고 싶은 성북동 6년차 세입자이다. 지인의 권유로 지역 활동에 슬며시 발을 들인 것이 작년 일인데, 이제는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 줄 모를 만큼 사는 동네인 성북동과 일터인 연남동 양쪽에서 열일하다 올해는 성북구 마을지원 활동가로도 일하고 있다.

동네공간은 성북구 지역 사회에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체들이 필요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고자 만든 공간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 활동 주체들이 필요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공간 자금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옛 카페 티티카카 자리에 위치하며 한 명의 개인 또는 모임·단체·회사가 감당하기 벅찬 월세 부담을 여러 단위가 모여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은 성북동 주민과 건축그룹[tam], 성북동천,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성북마을기금협의회, 성북마을무지개, 창작집단미리(한벽한달), 협치성북시민협의회 등이 사무실 겸 모임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12-6, 1층 건축그룹[tam]

문의 adultscentre@gmail.com



지역공동체 특집

낮선 만남의 시작, 마을여행

김경서

“같이 정자에서 밥 먹었던 게 제일 좋았어요.”

제작년 마을여행을 마친 여행자가 내게 건넨 이야기다. 매일 먹는 밥, 종종 보는 흔한 정자 컴퓨터에서의 기억이 왜 가장 인상 깊고 좋았을까. 결국 마을여행의 감동은 그럴싸한 풍경과 그럴듯한 서비스, 고가의 선물이 아닌 누군가와 만남이 주는 것 아닐까. ‘마을은 곧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마을여행을 만들고 마을공동체를 만나 함께하는 마을살이를 꿈꾸게 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풀리지 않는 궁금증, 마을여행은 과연 마을에 필요할까?

2013년, 성북동 북정마을에서 마을사람들과 활동한 것을 계기로 간간히 마을공동체를 소개하는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마을박람회에서 마을이야기 부분을 맡아 진행하게 되면서 ‘마을여행사무소 [마을로행]’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마을여행 사업을 시작했다. 성북구 내에서도 ‘성북마을견문록’이라는 연수형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협력하여 개발, 운영하기도 하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활동을 계속할수록 의문이 더해졌다. 마을여행은 과연 마을에 필요할까.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초대했거나 혹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을 맞아야 하는 걸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을공동체의 일상을 알리고 그 경험으로 여행자들도 공동체를 꿈꾸게 하는 것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문과 고민은 깊어만 갔다.

그러다가 2016년 공정여행국제포럼 조직위에서 마을분과를 운영하게 되면서 지자체의 마을과, 관광과, 마을협의체,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게 됐고 긴 고민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물론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을 명확한 답은 아직도 없다. 다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을여행의 가치와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를 위한 공정여행으로서의 마을여행

“마을주민, 마을공동체, 관광기업, 정부가 논의하는 마을관광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해 9월에 있었던 국제공정관광포럼에 초대된 인도네시아의 수메

시 만갈라세리 카바니투어 대표가 발제 시 들려준 이야기다. 마을관광 위원회가 대형 리조트사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의 채용 비율과 임금 등을 논의·결정하며 소음, 쓰레기,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았다고 했다. 고민만 하다 끝날 것 같던 문제의 답이 보이는 듯 했다. 답을 내려줬던 것이 오류였다. 답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같이 논의하고 조율해야 하는 것이었다.

책임관광을 넘어 공정여행은 그렇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행복해지는 관광을 꿈꾼다. 그곳에 사는 사람, 찾아 온 관광객, 맞이하는 상인, 여행자를 안내하는 여행사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공정한 관광을 지향한다. 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목적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실로 크다. 목적은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정말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자’ 정도의 타협으로 끝날지 모른다. 그래도 그것이 아무 논의 없이 한 쪽 의견만으로 다른 누군가가 불편을 겪거나 고통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믿는다.

공정여행으로서의 마을여행은 아직은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우선 공정여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관광산업을 받아들이기 만한 마을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지방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도심에서의 마을여행은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다.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마을공동체 측면에서는 관광산업으로서의 마을여행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크지 않다보니 그에 대한 악영향 또한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마을공동체도 많다.

마을탐방, 마을관광 그리고 마을여행

우리가 통상 마을여행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마을과 관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현재 ‘마을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마을 측면에서의 요소들이 관광 요소보다 많은 ‘마을탐방’이 있다. 마을탐방은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그 마을 구석구석에 숨은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다. 말 그대로 마을을 둘러보고 학습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관광 요소 위주의, 소위 말하는 로컬관광으로서의 ‘마을관광’이 있다. 대개 쇼핑, 관광지 관람 위주로 구성된 마을관광은 지방에 비해 도심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았으나 이화동, 서촌, 북촌, 익선동, 서울로 일대 등 점차 도시재생과 맞물려 그 수가 많아지는 추세다. 안타깝게도 마을관광은 마을탐방과 비교해 볼 때 마을공동체가 배제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마을관광지들은 소비여행이 주를 이루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또는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¹⁾과 같은 몸살을 겪는다. 마을공동체 형성과 유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기능이 사라지고 마을이 상업화되면서 관광지가 된 곳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과 관광 모두의 측면에서 그 요소들을 고루 갖춘, 공정여행으로서의 ‘마을여행’이 있다. 마을공동체가 배제되지 않고 그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활동을 나누며, 한편에서는 문화관광자원들을 관람하고 맛있는 음식점과 카페에 들러 한껏 여유를 부리는, 또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도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마을여행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마을여행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필자도 함께 기획에 참여한, 얼마 전에 있었던 문화재청의 ‘성북동 문화재 야행’ 또한 성북동의 문화재들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을 관람하는 마을관광에 가까웠다. 하지만 다양한 관광요소들과 상업지역이 있고 마을공동체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성북동은 마을관광이 아닌 마을여행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1) 관광과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로, 지역의 관광지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공정여행으로서의 마을여행, 성북동 문화재 야행

한양도성, 성락원, 한국가구박물관, 최순우옛집, 이종석 별장, 수연산방 등 정말 많은 문화재들이 즐비한 마을, 성북동. 그 문화재들을 야간에 둘러보고 문인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성북동 문화재 야행이 지난 5월 19, 20일 양일간 진행됐다. 첫 번째 행사라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큰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계기였음은 분명했다. 특히나 앞서 구분한 마을여행으로서 성북동 문화재 야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만해 한용운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심우’, 어린이 음악극 ‘개비개비돌도개비’, 조지훈의 시를 모티브로 한 무용음악극 ‘주도18단’ 등 창작된 문화콘텐츠들과 기존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들은 마을여행의 관광적 요소로 부족함이 없다. 이와 더불어 마을로서의 성북동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마을공동체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줄 수 있다면 훌륭한 마을여행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성북동 마을계획단, 성북동 상인회, 성북동 친환경음식문화 자율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성북문화원, 성북동 주민센터, 성북동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논의할 테이블이 필요하다. 물론 어렵고 지난한 과정일 것이라 짐작하지만 그것만이 공정여행으로서의 마을여행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행복한 여행은 어쩌면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기에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한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을 배려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지속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비로소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지 않을까.

나는 성북동이 다른 관광지가 된 마을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5월에 이어 9월에 있을 하반기 성북동 문화재 야행에서부터라도 조금씩

마을여행으로서의 요소를 담아내길 개인적으로 바라는 이유 중 하나다.

낮선 만남의 시작, 마을여행

공정여행으로서의 마을여행은 아직 많이 낯설다. 서로의 입장차도 있을 것이고 바라는 점도 확연히 다를 것이며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 입장만을 고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렵고 끝없는 것 같은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독단적 결정으로 파생되는 수많은 고민과 고통을 안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낮선, 어찌 보면 새로운 개념처럼 들리는 마을여행이 모두에게 공정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만나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란다. 그렇게 마을의 주민, 상인, 여행자 그리고 그들을 안내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돕는 행정 모두가 웃으며 낮선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을여행을 꿈꾼다. 

-

김경서는 마을문화기획사를 표방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주)아트버스킹 대표이다. 마을여행사무소 [마을로행]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성북동 마을여행 - 골목탐방

한양도성 혜화문 밖 첫 마을

장영철

지난주까지 극성이던 미세먼지가 걷히고 봄의 끝자락에 성북동을 다시 찾았다. 다행히도 모처럼 하늘이 파란 본 바탕을 보이며 나를 맞아 주었고, 적당히 떠있는 구름은 근래 30도 가까이 오르며 여름을 재촉하던 날씨를 본래 봄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덕분에 성북동 나들이의 시작이 한결 가벼워졌다.

골목 탐방의 처음은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시작한다. 출구에는 언제 들어섰는지 역사문화마을 성북동이란 입간판이 서 있다. 꽤 자세하게 성북동을 소개하고 있어 성북동이 초행이라면 한번 읽어보고 걸음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오늘 걸어보고자 하는 골목길은 어느덧 성북동의 명물이 되어버린 나폴레옹 제과점을 시작으로 혜화문을 거쳐 혜성교회, 경신중·고등학교를 지나 한양도성 성곽길을 따라 걷다가 이어서 성북동 작은갤러리를 거쳐 최순우옛집을 끝으로 성북동 메인도로를 따라 내려오는 코스이다.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설명하자면, 원래 나폴레옹 제과점은 복개된 성북천 위 삼선시장 상가건물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성북천이 복원되면서 지금의 성북동 자리로 이전하여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 이전하기 전 나폴레옹 제과점의 빵맛도 지금보다 못하지 않았다.

조금 복잡하지만 나폴레옹 제과점을 거쳐 혜화문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은 이 골목이 현 시점의 성북동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곳이기

도 하고, 골목골목 특색 있는 카페와 맛집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앵두나무가 많아 앵두마을이란 애칭으로 불려 왔는데 현재는 앵두나무를 심은 집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앵두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면 지금쯤 하얀 앵두꽃은 떨어지고 초록의 앵두가 오월의 햇살을 받으며 붉게 익어갈 텐데 말이다.

제과점 뒷골목을 통해 혜화문까지 도착했다면 어렵지 않게 한양도성의 성곽을 발견할 수 있다. 성곽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다르지 않기에 한양도성도 적들의 동선을 잘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산의 능선이나 언덕에 세워졌다. 오늘 탐방은 탁 트인 전망을 보장하는 그 언덕길을 포함하는데, 성곽 왼쪽을 걷는 동안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언덕길 아래 다다다다 붙어 있는 집들과 그 너머 건너편 언덕 능선에 자리한 집들까지 성북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왔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혜화문에 도착해 다시 오른쪽으로 걸어나가다 보면 한양도성 성곽길을 만나게 된다. 혜화문과 성곽은 생뚱맞게 단절되어 전혀 이어져 있었을 것 같지 않지만, 아랑곳 않고 성곽이 뻗어 나간 방향으로 따라 걸으면 된다. 걷다가 발걸음을 잠시 멈추면 자연석과 인공석을 교묘히 다듬어 쌓은 600년 역사의 한양도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 구간은 옛 도성의 흔적과 복원한 성곽이 어우러져 묘한 이질감과 어우러짐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5월이 주는 선물인지 석축 사이사이 노란 들꽃까지 덩으로 볼 수 있어 즐거움을 준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성곽을 기준으로 안쪽은 종로구, 성곽 밖은 성북구로 나누어진다. 성곽 아래로 성북동을 내려다보면 검은 기와를 얻은 낡은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데 현재 한옥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낡은 한옥들은 빠르게 헐리고 빌라나 상가 건물로 개축되면서 성북동의 정취를 상징하던 한옥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아쉬움도 함께



느끼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여유와 멋을 주는 한옥이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집이겠지만, 실제 거주하며 살아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불편하고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재산일 수도 있기에 성북동의 한옥마을이 보존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든다. 한옥이라는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의 입장과 그 한옥들이 지역과 어우러져 형성하는 경관 자원과 같은 공공의 가치가, 함께 존중받고 지켜질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가져 본다.

성곽을 따라 계속 건다보면 당연히 있어야 할 성곽은 끊기고 밀등만 남은 성곽에 걸쳐 누군가의 집이 들어서 있는가 하면, 성곽의 일부가 담벼락이나 텃밭의 경계로 사용된 집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왕조와 왕권을 지키던 도성이 후에는 백성의 편이 되어 그들의 삶 안쪽으로 파고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성곽이 온전하던 때에는 혜화문 안쪽은 양반을 중심으로 한 왕과 고관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혜화문 밖 성북동은 생포목을 삶아 표백하는 마전과 훈조라는 매주를 쐬는 일을 하는 양민들의 터전이었다. 그렇게 신

분에 따라 삶의 터전을 구분 짓던 성곽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낮아져 그 경계를 기꺼이 내어주면서 백성과 서민들의 집터가 되고 텃밭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다. 본래 경계를 치는 목적이었던 성곽이 공간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되었으니 사물의 역할이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도 배우게 된다.

계속해 걷다보면 곧게 뻗은 성곽에서 빗살처럼 아랫동네로 나 있는 계단을 만나게 된다. 실제로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온전히 동네 주민 뿐일 것이다. 굳이 좁은 계단을 통해 이 길을 오를 이유가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십 차례 이곳을 걸어보았지만 나 또한 이 골목 계단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여 걸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여유가 있다면 아래로 나 있는 많은 길 중에 마음에 드는 골목 계단길을 하나 골라서 한번쯤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관통해 보는 것도 재미난 경험이 될 것이다.

경신중·고등학교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학교의 경계를 따라 점점 좁아지는 골목을 지나 혜화동과 성북동을 이어주는 도로와 마주친다. 성곽이 온전했다면 있지 않았을 도로이지만 이를 경계로 아랫동네는 마전터, 윗동네는 매주를 꾸던 북정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골목의 끝을 빠져 나와서 큰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오다 보면 시민문화유산 1호로 보존된 혜곡 최순우 선생의 근대 한옥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이 골목 저 골목 조금 발품을 팔아야 혜곡 선생의 공간으로 초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순우옛집을 마지막으로 골목 탐방을 마무리 할 때쯤 눈과 마음으로만 점 찍어두고 아쉽게 지나쳐 온 성북의 맛집 한곳으로 들어가 성북동의 맛도 품어보면 더 없이 좋겠다. 



장영철은 성북동에 대해 관심이 많은 직장인으로, 본지의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그동안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함께 하기도 했으며, 성북동이 이웃들과 정답게 살아가는 행복한 성곽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성북동 문화재 답사기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35호 ‘성락원’을 찾아서

박진하

디미방 점심영업을 마감하고 쉬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김충무로부터다. 오는 토요일에 성락원이 개방된다니 참가 신청을 해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잡지 편집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이너와 함께 이 명승지를 찾게 되었다.

같이 동참하겠다는 부인과 함께 이 원림을 찾아 나섰다. 당초 사적지이었던 것을 명승으로 변경 지정한 것이라 한다. 이곳은 소쇄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통 양식으로 조성된 3대 정원 중 하나이다. 사실 정원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원림이란 표현이 정확한 것이다. 정원이란 말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이식된 것으로 일본식 정원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도심 속 저택에 인위적으로 조경을 한 것이 정원이라면, 원림은 경지가 좋은 곳을 찾아 자연 그대로를 조경으로 삼아 적절한 위치에 정자나 집칸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성락원은 서울 속에 만들어진, 확실한 의미의 ‘원림’이라고 할 수 있다.

한성대 전철역 6번 출구에서 성북천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두 갈래의 개천이 합쳐지는 선잠단지 앞에서 우측을 선택하여 다시 나아간다. 조금 걸었을 뿐인데 또다시 개천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이번에도 길상사 방향이 아닌 오른 쪽 개천을 따라 오른다. 앞 쪽이 탁 트인 공지가 눈에 띈다. 성락원 입구에 다다른 것이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우리 디자이너도 저만큼 서서 우리 부

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갑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고 참가비 만원씩 납부한 뒤 주위를 살펴본다. 시멘트에 회 벽돌을 부착해 만든 대문기둥을 양측에 두고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오른 쪽 주차장 뒤편을 바라보니 두 단으로 나누어 조성된 계단식 화단이 보인다. 그곳에는 여러 나무들과 함께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개방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며 상락원의 한자적 의미를 화제로 일행과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 성락원이라는 한글 표지판을 봤을 때에는 한자로 ‘成樂園’인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이후, 주변 경치가 아름답고 가까운 도성 밖에 위치한 원림이라는 뜻에서 ‘城樂園’인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고종 황제의 다섯째 아드님인 의친왕이 사시던 곳이라 하여 이 강궁 별저라 불렀다 한다. 그러니 실은 이런 당호를 가지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성락원이란 문화재 명을 듣게 되었을 때에 소학에 나온 ‘성어락(成於樂)’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시어(詩語)와 이를 기초로 시를 짓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만나 공손한 예법을 갖추어 교류하는 것을 학습해야 하며, 나아가 하나하나의 음이 모여 조화롭게 어울리고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원리를 터득해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른바 풍류다.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 의미가 신선하게 다가왔다. 우리의 성리학이 단지 예절과 격식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 그것이 ‘성어락(成於樂)’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원림을 만들고 이곳에서 시회를 열고 아름다운 음악을 즐겼다는 뜻에서 ‘성락원(成樂園)’이라 명명했다면, 정말 멋진 당호가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다.

드디어 입장이 시작되었다. 문화 해설사의 낭랑한 음성과 함께 하는 답사이다. 저 위쪽에서 흘러 내려온 계류는 석축을 쌓아 정리한 지하수

로를 거쳐 밑에 있는 성북천과 만난다 하신다. 당초에는 두 줄기의 물이 여기에서 만나 흘러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한쪽이 막혀 있다는 그녀의 설명을 듣고 손길을 따라 오른 쪽 위를 바라보니 담장으로 막혀있다. 이제 한 쪽만 남아 있으나 흐르는 시내 주위 풍경은 출구 위에 쌓아 놓은 석축 외에는 그 어떤 인위적인 조성이나 가공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 그대로였다. 다만 ‘쌍류동천(雙流洞天)’이라는 전각이 바위에 새겨진 것만이 사람 손이 가해진 흔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정리하고 조성한 부분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류를 중심으로 좌우로 자연석을 쌓아 정리했다든지 가산(假山)을 만들어 비보를 했다는 것이 그렇다. 다만 자연 그대로를 존중하고 이를 보존한다는 정신을 근간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그들의 흐름이 막힘없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방향임은 틀림이 없다.

행서체로 이 지점을 동천이라 명명한 것은 선비들의 취향을 드러낸 것이지만 좋은 경관을 찾아 즐기려는 도가풍의 유희관도 포함되어 있다. 동천(洞天)이란 용어가 신선들이 사는 동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을 찾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세파를 잊고 신선이 된 심정으로 노닐고 싶다는 뜻을 담은 게다.

길은 계류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다. 이 원림의 핵심인 은밀한 내원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산을 만들어 감추어 두고 있다. 이 작은 동산을 끼고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이 작은 동산은 엄나무를 식재해 조성했다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소나무처럼 보인다. 이처럼 가산을 만들어 비보하는 것은 중국 풍수의 영향으로 보인다. 물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에서는 물이 흘러 나가는 자체가 재물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몹시 싫어한다. 그래서 집에서 물이 빠져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기피한다. 이런 중국 풍수사상에 의거하여 내원에서 볼 때 쌍류동천을 거쳐 물이 빠져 나가는 것 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든 장치가 바로 이 가산이다. 그 이름을 용두(龍頭)가산이







라 작명한 것도 이를 암시한 것인데, 지맥이 꿈틀거리는 것을 용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면서 용이 이 지점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용두가산이라 명명한 것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계류는 이 가산을 돌아나가게 되어 있다.

가산 옆 개천과 내원으로 가는 오솔길 사이에는 꽤나 오래된 고목이 커다란 암석의 호위를 받으며 서 있다. 이 오래된 느티나무 주위를 커다란 자연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홍수나 기타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 나무를 중심으로 돌아나가니 시야가 확 트인다. 멀리서 후원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가까이 보이는 연못이 ‘영벽지’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곳은 그림자가 비치는 푸른 연못이라는 뜻에서 영벽지(影碧池)라 부른다. 그곳 한가운데에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에 의해 조성된 드르가 보인다. ‘드르’란 우리나라 전통 한옥 앞에 배치하는 것으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 모양의 벽사물이다. 드르는 불을 가지고 장난치며 놀다 끝내 집에 불을 내는 도깨비가 왔다가 이 드르에 비친 자기의 흉측한 얼굴에 놀라 도망가게 하는, 즉 화마로부터 건물을 지키려는 상징물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드르는 하늘은 원으로, 땅은 사각형으로 표현하던 천원지방의 사상에 의해 사각의 외형 안에 둥근 홈을 새긴 것이다. 하늘과 땅을 포함한 우주를 새겨 이 연못에 넣어두었다. 해설사에 의하면 최근 조사 과정에서 달이 가운데에 있는 둥근 원형 안으로 속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했다 한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어느 때인가? 정월 보름 밤, 이 속에 담긴 달그림자를 상상해 본다.

천연 암반을 이용해 만든 이 조형물을 간직한 연못 측면 암벽에는 행서체의 ‘장빙가(樺氷家)’라는 각자가 보인다. 밑에 완당이란 글씨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

기 드물게 추사체가 아닌 행서체로 쓰인 글씨가 무척이나 우아해 보인다. 고드름이 커다란 돛대처럼 매달린 집처럼 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한 겨울의 영벽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계곡을 따라 내려온 계류는 일차적으로 후원 앞 연못에 머물게 된다. 물이 연못에 가득차면 둑 너머로 조금씩 방출하는 방식으로 무너미(물이 흘러넘치는 곳)로 흘러 보낸다. 조그마한 홈을 따라 내려온 물줄기는 작은 폭포를 거쳐 두 번째 연못인 이곳에 다시 고이게 되는데, 한겨울에는 이 작은 물줄기가 모두 얼어붙어 커다란 고드름 집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연못을 뒤로 하고 암반을 향해 오르다 보면 왼편으로 인공 잔디가 펼쳐진다. 그 위로 커다란 노송 세 그루가 보인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 누워 버렸다는 노송의 자태가 참으로 주위 경관과 더불어 기품이 있어 보인다. 한쪽으로는 자연 괴석이 놓여 있는데 그 위로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다. 어떻게 단단한 바위를 뚫고 자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참으로 희귀한 장식물이 되고 있었다.

보다 넓은 암반이 있어 정자가 놓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으로는 청산일조(靑山壹條)라고 전서체로 새긴 각자가 보인다. 또 왼쪽 위 암반에는 凹형태의 커다란 홈 자국이 보인다. 이른바 가마가 다니던 길이라 한다. 마치 가마를 올려놓던 가마 주차장처럼 보인다.

다시 내려와 오른쪽 본체로 향한다. 이른바 의친왕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같이 동행하며 안내하던 지역 봉사원의 설명에 의하면 본래의 건물은 1960년대에 화재로 인해 전부 소실되었고 다시 복원된 것이어서 문화재적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밑에 놓인 한옥건물은 전체적으로 T자형의 팔작지붕 형식으로 격자무늬 방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곳이 의친왕이 기거하던 곳이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 자세한 것은 볼 수 없었으나 뒤편으로 대나무와



소나무가 심어진 후원이 있었다. 흔히 선비들이 후원에 심어 완상하던 대나무와 한겨울에도 푸른 솔잎을 간직하고 있는 소나무의 기개를 보면서 의친왕도 망국의 슬픔을 달래려 하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 건물을 돌아 나가니 커다란 연지가 있고 전면 7칸, 측면 2칸의 큰 누각이 보인다. 이는 1960년대 건축된 것으로 커다란 대청마루가 시원스럽게 느껴진다. 그 뒤로는 송석(松石)이라 새긴 암반이 보이는데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곳을 돌아 두 줄기로 못 안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한다. 이 연못은 연꽃이 피어나는 연지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다. 아름답게 활짝 핀 붉은 연꽃들과 송석정은 꽤나 어울려 보였을 것이다.

그 위쪽으로는 갈 수 없었으나 비탈진 북쪽 산자락 중앙에 자리한 소나무 밑에는 바위를 쪼개 만든 두 뺨 크기의 고엽약수(枯葉藥水)터가 조성되어 있다한다. 여기에서 나온 약수를 궁에서 길어다 먹었다고 전해지며, 철종 때에는 별감이 나와 지켰다고 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성락원은 가운데 위치한 내원이 중심이고 전체이다. 본격적으로 이 원림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순조 때라고 하나, 조사 발굴과정에서 확인된 것에 의하면 이보다 훨씬 앞선 고려시대 혹은 삼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당초 이런 내원을 조성하는 순서를 보면 아름다운 경승지를 찾는 것이 먼저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성하기 전에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장소였던 것이다. 당시 성북동 일대는 도화꽃으로 유명한 한양의 5대 명승지 중 하나였다. 특히 성락원 주변은 계곡이 깊고 수석이 맑으며 도성에서 멀지 않아 세도가들이 자주 찾아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최근까지 발굴 조사한 것은 외부로 발표하지

않고 이 명승지에 대한 사진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단속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신비스럽게 덮어두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숨겨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밝히는 것이 바른 도리이건대 오히려 이를 감추고 숨긴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혹 내원 이외의 모든 시설들이 1960년 대 이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함인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밝히는 것이 좋다 생각한다.

아름다운 사진을 보았으니 그곳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사진과 실물은 다르다. 오히려 그로 인해 실제의 절경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무언가 감추고 숨기는 데에서 문제는 발생한다. 널리 공개하시길 바란다.

우리나라 풍수의 대가인 최 선생의 글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풍수지리서 ‘택경(宅經)’에서 저자 유암이 인용한 대목은 특히 탁월하다. <택경에 이르기를 산 하나 물 한 줄기가 다정하게 생긴 곳은 소인이 머물 곳이고, 큰 산과 큰 물이 명당 터로 들어오는 곳은 군자가 살 곳>이라 하였다.

좁다란 계곡, 아름다운 경치의 장소에 달랑 제 식구 한철 보낼 수 있는 별장 터를 잡아놓은 사람들은 택경이 지적한 대로 소인배에 지나지 않으니 서둘러 원래 땅으로 복원시켜야 군자 근처에라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풍수지리, 최창조)

후원 뒷산에 올라 전체 지형을 살펴볼 수는 없었으나 주변 지형과 자료로 추정컨대 분명 명당 터임이 확실하다. 북한산 문수봉에서 뻗어 내린 구준봉에서 비롯된, 지맥이 잘 형성된 좌청룡과 우백호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그렇다. 좌청룡이라 함은 지금 한진 아파트가 위치한 산이 그것

이고 우백호라 함은 낙산 지류가 맑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명당 터는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이를 공개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해야 한다.

지난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8호에 실린 ‘성북동 착한 형을 만나다.’ 라는 인터뷰 기사를 보면 성락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성북동에서 가장 추천할만한 명소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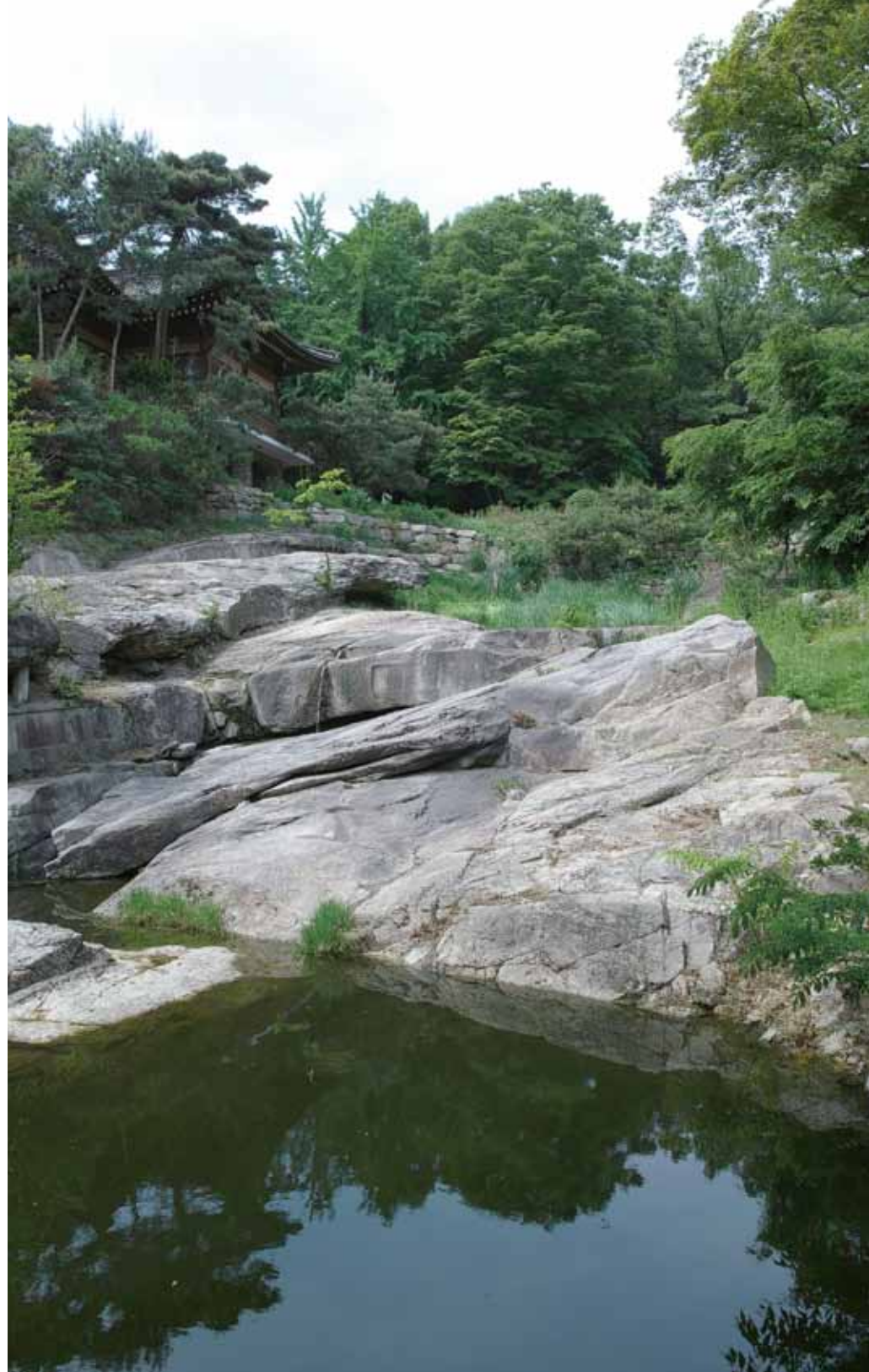
“성락원 길을 따라 올라가면 꽤 깊고 큰 연못이 몇 개 있어요. 지금은 그곳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주 조용하고 초록빛 나무로 우거진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장소가 성락원의 내원과 후원이다. 성북에서 자라고 성장한 이들의 말에 의하면 성락원은 그들이 어린 시절 뛰어 놀던 아름다운 추억이 간직된 장소라 한다. 그들의 그 아름다운 시절이 과거라는 시간 속에 갇혀있듯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명승지도 그동안 굳게 닫혀있었다. 앞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니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다. 그 옛날처럼 방치에 가까운 자유로운 수준으로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명승지, 소쇄원이 그러했듯이.

우리 선조들이 밝은 눈으로 아름다운 명승지를 발견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던 것처럼 성락원도 누구나 즐겨 관람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 기쁨도 나누면 배가 된다 했으니 이런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도 나누면 우리들의 맘과 정서가 보다 넉넉해질 것이다. 

-

박진하는 성북동의 명소인 작은 식당 ‘디미방’을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요가와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다. 우리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성북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성북동 사람이다.





성북동 문화 아지트

어딘가에 아무 곳도 아닌

최영환

성북로8길, 승용차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아스팔트 도로 초입에는 양 옆으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동아 철물, 언니네 분식집, 서울 부동산, 옛날 중국집, 그리고 CU 편의점까지, 그만그만한 크기의 소규모 점포 대부분은 60-70년대 산업화 시기 이후로 90년대 중반까지 유행했던 복층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해 있다. (간혹 단층건물도 있고 3층 건물도 보인다.) 어떤 건물은 빗바랜 노란색 직사각형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건물은 붉은색 벽돌이 이를 대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층을 상업공간으로, 상층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 요즘처럼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복합 쇼핑물

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기 이전, 흔히 ‘큰길가’로 불리는 4차선 이상의 대로에 접해 있는 이런 작은 길 초입에 소규모 상업과 주거를 겸한 저층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그 길 안쪽으로 주거 지역이 이어지는 형태의 공간 구조는 기능적으로 분명히 구획된 도심의 그것과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길을 따라 몇 발자국 옮기자마자 2차선의 도로는 그 위를 가로지르는 영킨 전선처럼 작은 골목들로 갈라진다. 교행자를 배려해야만 하는, 그해야 서로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만한 좁은 골목을 끼고 한옥들과 저층 공동주택이 빼곡히 늘어서 있다. 이 골목길 한편에 위치한 한옥, 주변의 집들과 달리 한 집의 대문에는 문패가 없다. 그 대신, 대문 한편에 ‘이주현’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진 직사각형 모양의 플라스틱 네온 박스가 달려 있다. 이곳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다양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공간이다. 이주현은 성북동 일대에 산재한 여느 한옥들처럼 전통 한옥의 외형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애초의 재료인 흙 위에 근대적 재료 콘크리트가 덧발라지면서 만들어진 한국 근·현대 주거문화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이형조합의 공간에는 산업화 시기 서울로 몰려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기거하며 남긴 도시민의 일상적 기록이 담겨 있다.

늦겨울 한파가 기세를 부리던 지난 2월, 나는 이주현에서 거주지와 거주자의 삶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전시를 열었다. 〈어딘가에, 아무 곳도 아닌〉전은 도심 주거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두 개의 패러다임, 개발과 보존, 사이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제3지대(현저1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현저1동의 주택들은 10여 년째 주인을 잃고 버려진 상태이다. 금싸라기 같은 서울 땅에 ‘버려진 마을’이 무슨 말이냐고 묻겠지만, 서울에는 이미 8만여 채의 빈집이 존재한다. 마을과 집들이 비게 된 연유는 제각각이지만 현저동은 수익성 부족으로 재



개발 계획이 유보된 경우다.

공교로운 일이지만 이주현이 위치한 성북동에서도 얼마 전까지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현재는 현저동과 비슷한 이유로 재개발이 철회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개발업자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성북동과 현저동 모두는 현대 도시 개발의 역사 속에서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성북동의 주민들은 여전히 그 터전에 남아 삶을 영유하고 있는 반면, 현저동의 원주민은 이미 오래전 자신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에드거 앨런 포우(Edgar Allan Poe)는 그의 소설 『어서 가의 몰락(Fall of the House of Usher)』에서 ‘버려진 집’을 바라보는 인간의 심리에 관해 치밀하게 분석했다. 저자는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와 거주자의 삶에 궤적을 연계함으로써, ‘사람’과 ‘거처’를 동일시했다. 이 때문에 그의 소설 속 폐허가 된 집이 내뿜는 음울함과 괴기스러움은 단순히 냉혹한 공포로만 다가오는 것 아니라, 서서히 몰락해 가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비애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시에 산재한 ‘버려진 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현저1동의 버려진 집들은 대규모 주택 개발 방식이 남긴 낙진인 동시에 산업화 시대를 거친 현대 도시가 간직한 역사적 산물이다. 이곳 거주자들 대부분은 60-70년대 빈농에서 노동자로, 가난을 피해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흔히 도시 빈민이라 불리던 그들이 기거하던 판잣집은 시간이 흘러 콘크리트 벽돌집으로 변모했고 그들의 삶도 그 물리적 변화만큼이나 공고해졌었다. 그러나 애초에 국유지 위에 지어진 이 건축물들은 2005년 도시 환경 개선 명목으로 시행된 재개발 계획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는 합법적인 토지 소유권 이전을 통해 대부분의 원주민들을 몰아 낼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2016년부터 진행해 온 <만약 당신이 이곳에 산다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였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년여 간, 내가 새로 이주한 집 주변을 관찰 기록하면서 느낀 감정에서 비롯됐다. 나는 서대문형무소 앞 ‘옥바라지 골목’이 환경 개선이란 명목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했고, 강제 철거에 저항하는 원주민들의 투쟁 과정을 비디오표로 기록했다. 그리고 내가 가족들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 주변에 조성된 공원에서 보낸 단란한 일상과 우리 집 뒤편 창문으로 바라다 보이는 현저1동의 버려진 집 곳곳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기록은 반경 1km 남짓의 한 동네 안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로 구성됐다. 그 안의 이질적인 풍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의 축소판이며, 내가 이 도시를 바라보는 ‘양가적인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그 안에서 편안한 삶을 꿈꾸는 기본적인 욕구와 이를 오도해 주택을 금전적 가치만으로 환원 시켜버린 개발자의 욕망, 그 사이 폐허로 변해가는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느꼈을 상실감, 이 다면적인 감정들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곳곳에 배어 있다.

특별히,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모티프는 내가 현저동 어느 버려진 집 한 편에서 마주친 벽화에서 차용됐다. 자화상으로 보이는 인물의 시선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되어버린 까마귀 부리의 뺨을 쫓는다. 결코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뺨을 쫓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

나는 이번 전시를 구성하는 작품 중 하나로 현저1동 일대 60여개의 등기부등본을 가져왔다.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또 다른 표식이다. 그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집들이 놓여 있는 땅의 소유권은 조각조각 나뉘어 있다. 실재하지만 문서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집들은 결국 누구도 머물 수 없는, 아무 곳도 아닌 장소가 된 것이다. 나는 현저1동에 존재하는 집들을 한 채씩 촬영해 등기부등본상의 구획대로 조각내어 파노라마 사진으로 재현했고, 그것을 등기부등본과 함께 펼쳐 놓았다. 이처럼 조각나 버린 건축물의 운명은 이곳의 원주민의 그것과 다름 아니다. 이러한 단서들과 함께 나는 현재까지 현저동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벽화로 남겼다. 아무 곳도 아니게 된 이곳에서 잊혀간 그 사람들을 누군가는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대 도시 안에서 주택에 관련한 문제는 사회, 경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집의 의미를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것일까 자문해 본다. 아마도 그것은 예술가가 타인과의 공감에 기반을 둔 '예술의 소통적 본성'을 신뢰하고 그 예술을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로 인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유리창이 깨지고 쓰레기가 널브러진 현저1동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6개월째 생활하고 있다. 이곳에는 여전히 50여명의 원주민이 머물고 있고, 나는 하루하루 이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그것을 기록 중이다. 그 대화 속에는 각자가 바라는

미래가 담겨 있다.

언젠가는 이곳도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다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상상하기 힘들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존중받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토양 아래 그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예술에게도 역할이 부여된다면, 나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것이다. 

-
최영환은 미술가이다. 지난 2012년 성북동에서 '동네스토리닷컴'이라는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과 호흡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고, 2014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원으로 성북동재개발3구역 일대에 햇볕에 반사되는 거울을 이용해 성북동 주민의 생각을 글자로 새기는 공공미술 작업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주현 利宙軒은 2015년 6월에 개관한 스페이스 오뉴월의 프로젝트 공간으로, 성북동의 좁은 주택 골목 사이에 위치한다. '좋은 집'이라는 뜻의 오뉴월 이주현은 전시뿐만 아니라 워크숍,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열린 공간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8길 8-6

문의 ☎ 070-4401-6741 | onewall@onewall.com | 홈페이지 <http://onewall.com>



우리동네 문학살롱

정종과 함께 성북동에서 눈감은 횡보 염상섭

김지애

횡보(橫步), 염상섭의 호는 ‘가로 횡’에 ‘걸음 보’를 쓴다. 본디 호는 제월(霽月)이었으나 늘 술에 취해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다 하여 친구들이 호를 횡보라 지어주었다. 횡보 염상섭은 생전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 성북동에서 67세 나이로 눈을 감은 그는 임종 직전에도 아내가 떠먹여주는 정종을 세 숟가락 마시고 술 냄새와 함께 눈을 감았다.

횡보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많은 지역을 만나게 된다. 그는 1897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태어난 곳은 구한말 ‘뚝골’이라 불렀던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사직공원 근처라고만 알려져 있다. 출생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탓에 생가에 두고자 했던 ‘염상섭 상’은 종묘 광장에서 삼청공원으로 떠돌아다니다, 현재는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자리했다. 횡보는 중인이었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일제가 지은 보통학교에 입학했지만, 조선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현재 조계사 터에 있던 보성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15세에 홀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대학 입학 후 학자금을 위해 기자생활을 하던 횡보는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3월 19일 오사카 천왕사에서 재일동포들을 규합한다.

“...폭력이 무서워 복종하기에는 너무도 자유의 존엄성을 깨닫고 있는데 주저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에 목숨을 걸고 독립을 선언하는 바이다.”(염상섭, 「독립선언서」 일부)

독립만세운동을 이끌다 체포된 횡보는 약 석 달을 철창에 갇혀 있다가 2심에 무죄로 석방된다. 1920년 24세에 서울로 돌아와 동아일보 창간과 더불어 정치부 기자로 입사한다. 같은 해 기자직을 사퇴하고 정주에서 중학교사가 되기도 한 그는 1921년,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연재하며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펼쳤다. 1926년 30세 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 문단 진출을 꾀하기도 하였으나 32세에 다시 귀국하여 주로 신문사에서 일하며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1936년 40세에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떠났다가 해방을 맞으면서 다시 귀국길에 오른다.

1946년, 10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횡보가 자리를 잡은 곳은 돈암동 295-3번지였다. 그곳에서 염상섭은 경향신문사에서 근무하며 「두 파산」, 「임종」 등을 발표했다. 또한 아동문학인 「채석장의 소년」도 돈암동 시절에 연재했는데, 횡보의 따님 염희영 씨에 따르면 돈암동 집 근처에 채석장이 있었다며, “아침 산책길에 아버지가 분명 채석장을 지나셨을 것이고 그 경험이 소설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도 한동안 횡보와 그 가족은 돈암동 집에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횡보는 해군으로 임관하고, 일가족은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 전쟁통에도 틈틈이 연재를 하는 등 끊임없이 집필 활동을 이어갔으나 당시 글의 상당 부분이 유실되었다. 휴전 이후 횡보가 상경하여 살던 곳은 북아현동이다.

이듬해 54년, 횡보는 위병을 얻게 된다. 그러나 집필은 멈추지 않았다. 이후 행촌동, 교북동, 충정로, 상도동 등 끝없이 이사를 다니며 병세가 많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대필의 도움을 얻어 구두로 집필활동을 이어갔다. 횡보는 62년에 성북동 145-52번지로 마지막 이사를 한다. 그리고 63년 3월 14일, 정중 냄새를 품고 직장암으로 별세하였다.

횡보 염상섭은 자연주의 문학을 근대 한국 문학으로 유입하고, 사실주의 문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문학적 공로가 무척 크다. 또한 그의 작품에는 당시 서울 중류층이 사용하는 생활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국어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그의 작품은 현실적이고 날카로우며,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작가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언제 두 발로 걸어보겠다는 것인지! 방임주의란 민족 자주를 위해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도 아니거든요. 결국 막연한 민족 분열에서 심각한 계급항쟁에 들어가기는 독재나 방임이나 같은 작용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새로운 민족적 자각이 있어야만 될 텐데 어찌는 셈들인지?”(염상섭, 「재회」 일부)

작가의 1948년 작 「재회」는 월남한 주인공이 남한이 처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시대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실제로 한국 현대사는 위 작품에서 말하는 것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고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통찰력은 놀랍다. 다만 이 작품은 작가

의 다른 작품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전망을 제시하며 끝난다.

횡보는 계몽주의가 그 사명을 다할 때에 나타나 사실주의 문학으로 한국 문학계에 현실을 일깨워주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분단시기를 모두 포함하여 그 시대를 반영한 작품을 집필해왔고, 일생 동안 장편 28편, 단편 150편, 평론 101편, 수필 30편 등 약 5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군은 무슨 까닭에 술을 먹는가?”

“논리는 없지. 다만 취하려고.”(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일부)

유학 시절 횡보는 서울에서 원고료가 오면 태반을 술값으로 썼다. 함께 하숙하던 무애 양주동이 고료로 먼저 방세를 내는 반면, 횡보는 한 달 숙식비로 넉넉한 돈을 그날 하루 술값으로 다 쓰곤 했다고 한다.

성북동 ‘디미방’ 위로 5분여를 걸어 올라가면 작가의 옛집터가 나온다. 필자는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하지만 내가 걸어 내려온 그 길을 작가가 술에 취해 비뚜름하게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노라면, 횡보라는 그의 호는 어쩐지 더 친숙하여 계속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김지애는 일주일에 약 45시간을 정릉4동에서 보내고 있는 20대이다. 인터넷, 디지털, 정보의 가치만 배웠는데, 성북구에서 일하며 지역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배우느라 고군분투 하고 있다. 현재 성북구립도서관에서 병아리 사서로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염상섭, “(다시 읽는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맑은소리, 2000.

문학과사상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16.

김종균, “작고문인50 회고담”, 우리문학기림회, 2002.

“염상섭”, 「한국현대문학대사전」, 2004.

“횡보 염상섭”, 「한국문단사 1908-1970」, 2003.



우리동네 NGO NPO

성북동 아름다운 지구인, 녹색연합입니다

박효경

녹색연합은 올해 26년이 되는 환경단체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 생태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끈질기게 활동하는 곳이라 자랑하고 싶네요. 녹색연합은 우리나라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야생동물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을 지킵니다. 안전하고 순환 가능한 녹색생활과 생태문화를 알리고, 위험한 핵발전으로부터 전환하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본부와 9개 지역조직, 4개의 전문기구가 있는데 서울 성북동에는 본부와 녹색법률센터, 녹색사회연구소,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함께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성북동에 자리를 잡은 해가 2002년이었으니, 벌써 15년 전 일입니다. 종로 기독교연합회관 빌딩에서 이사를 했는데, 당시 한 달에 몇 백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환경문제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환경문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사 할 곳을 찾다가 운 좋게도 우연히 경매로 지금 이 주택을 알게 되었고, 활동가들이 직접 손을 보태어 마당과 텃밭이 있는 사무공간으로 꾸민 끝에, 4월 어느 날 동네 주민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을 성북동에서 살아 온 녹색연합 사무실은 녹색연합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닮아가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보여주는 사무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우선 녹색연합 사무실에는 없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개인휴지통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만들고 재활용품은 꼼꼼히 분리수거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대부분 지렁이 퇴비더미에 버려 흙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에어컨과 난방기기가 없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피크전력과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는 우리나라 발전소 증설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녹색연합은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여름을 나며 대신 무더운 한여름에 약 2주 자율근무제를 합니다. 세 번째, 일회용품입니다. 주방에 머그컵과 식기, 수저 등을 구비해두고 사무실 출입문 앞에 여분의 장바구니를 모아두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무실 생활뿐만 아니라, 행사나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킵니다. 종이컵을 쓰지 않기 위해 다회용 컵을 준비하며,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무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꼭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녹색연합의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녹색연합은 3층 단독주택

을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40여 명이 근무하는 건물 전체 전기요금이 월 2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가 있기도 하지만 멀티탭과 천정 조명등마다 있는 개별 스위치, LED 조명으로의 교체 등 절전과 에너지 효율 증대 노력에 기인한 바도 큼니다.

저는 마당에 조그맣게 마련된 텃밭을 제일 좋아합니다. 두세 고랑 쭙 되는 곳에 토마토, 깻잎, 고추가 자라고 있어 점심에 툭툭 따먹습니다. 텃밭 한쪽에 흙무덤을 만들어 지렁이가 살게 하고 채소나 과일껍질 등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이것이 텃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름이 됩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이면서 도심에서 잠시나마 자연을 느끼게 하는 곳이 녹색연합 사무실이지요.

이렇게 공간 자체가 환경교육이 되는 녹색연합 사무실을 아직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사실 성북동에 녹색연합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점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녹색연합의 주요 활동 현장이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저 멀리 떨어진 생태현장이다 보니 성북구라는 도심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녹색연합과 성북구청이 협력하여 성북구민들과 함께 성북구 절전소 활동을 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절전이 곧 발전’이라는 <실감나는 성북 절전소> 활동은 성북구 내의 동마다 절전소를 설치하고 절전소장을 뽑아 에너지교육을 진행하며, 함께 성북구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한 뒤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실천 과제를 고민하여 이를 시도합니다. 2016년 말에는 성북구의 약 2만 7천 세대가 절전소 활동에 참여하여, 성북구 전체 인구의 18%가 쓰는 양 만큼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북구 절전소 활동처럼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할 수 있는 실험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재

활용 할 수 있을까? 사람길, 녹지를 자동차길보다 더 늘릴 수는 없을까? 더 많은 공리와 수다가 필요합니다.

녹색연합에 놀러오세요. 함께 수다를 나누다보면 어느새 멋진 일들이 생길 겁니다. 많은 일들이 그러했 듯이요. 

-

박효경은 녹색연합 상상공작소에서 일합니다. 상상공작소는 녹색연합의 활동들을 알리면서 관심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시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도 아주 작고 하찮은 수다에서 비롯됐다고 믿으며, 세상에 잡담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우리동네 무중력시대

17717,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보는 사이

장혜영

성북동 177-17번지에 위치해 이름 붙여진 문화 공간 ‘17717’, 오월에 만났다는 고양이 오월이가 있는 한옥 카페 ‘희섬정’, 성북동 주민들의 모임 공간 ‘동네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의 구심점이 된 17717은 특정 공간이라기보다 성북동을 중심으로 예술로 소통을 꾀하는 하나의 기획 집단이다. 이들은 흥미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시도가 공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공간을 채운다고 입을 모았다. 작품으로 꼭 남기지 않아도 잠담하며 흘러가는 시간도 남을 수 있으며, 일상의 사건도 예술과 멀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17717은 조용한 갤러리보다 놀이터가 되고 싶다. 약속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여 장난치고 사람들이 붙고 늘어나면서 어느새 놀이가 만들어지는 놀이터, 누구나 와서 장난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다만 그 공간이 문화가 쌓이는 터전과 같아서 이들은 공간을 아꼈다. 이들이 공간 같고, 공간이 이들 같아서 나는 17717이 친구처럼 느껴졌다. 매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없으면 인생이 삭막해지고 마는 친구 같아서 그저 고민은 무엇인지, 요즘 어찌 지내는지 묻게 되었다.

아직, 남아있다

“성북동을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흘러갔지만, 몇 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제 또래 중에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동네에 오랫동안 계속 있다는 것, 그게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이었어요.” - 동네공간, 김기민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세 사람이 만났다. 문화공간 ‘17717’을 운영하는 김선문 씨는 한국적인 것을 찾아 성북동으로 왔고, ‘동네공간’을 운영하는 김기민 씨는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좋아서, 한옥 카페 ‘희섬정’을 운영하는 송나 씨는 판소리를 배우러 처음 동네에 들어왔다. 선문 씨가 찾은 ‘한국적’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들을 애정하는 마음이다. 그는 물건 하나 하나가 수많은 고뇌 끝에 만들어진 완성도있는 물건들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버려지는 모습에 쓸쓸함을 느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공간들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태원에서 동네를 떠나가는 작가님의 방을 얻어 ‘초록방’을 만들었고, 성북동에서는 버려진 옥상을 발견하고 ‘초록옥상’이라는 예술 모임 공간으로 일구었고, 동네주민분의 요청으로 지하 창고로 닫혀있던 곳을 갤러리로 바꾸어 세번째 문화 공간 ‘17717’을 열었다. 그리고

2013년 ‘성북동천’이라는 지역 주민 모임을 만들면서 자신과 같이 동네에 살고있는 기민 씨를 만났다. 기민 씨는 마음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티 타임이 좋아 홍차전문점 ‘티티카카’를 성북동에 열었다. 하지만 영리 활동과는 방향이 맞지 않아 카페를 접고 모임의 기능을 살려 ‘동네공간’이라는 지역 공간 플랫폼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들은 함께 마을 잡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간을 넘어 성북동의 청년 예술 공동체들과 연대하며 지역 중심으로 기반을 넓히게 되었다. 삼선동의 한옥 카페 ‘희섬정’을 운영하던 송나 씨도 합류해 지역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17717의 기획으로 일요식당을 희섬정에서 운영하게 된 것. 창업을 하고 싶거나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개방해 일요일, 하루 식당을 열어볼 수 있도록 했다. 송나 씨는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매일매일 그냥 의미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새 쌓여있는 것들이 신기해요. 거기에서 만나게되는 인연들이 좋고요.” 라고 말했다. 이들의 지난 경험처럼 공간의 모양과 쓰임은 그 곳에 모인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보다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쾌적한 공간보다 함께 하고자 하는 다정한 마음 속에 머물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오래된 책과 같이

“한 권의 책을 구성하는 여러 지면을 디자인할 때, 글자와 사진 혹은 그림의 요소를 어떻게하면 서로 어울리며 보기 좋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장 한장 정성들여 책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원리를 고스란히 공간에도 적용해서 디자인할 요소를 사람으로 대치하여 생각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여 어울리도록 할 때 어떤 새로운 생각을 펼쳐낼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이어주게 되는데... 이

러한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지역으로도 확장되면서 마을 안에서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 17717, 김선문

문화 공간 17717은 공간을 중심으로 물리적으로 구획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으로 나누어 낮 시간대에는 청년 미술 작가들의 전시를 펼쳐보이고, 동시에 밤 시간대에는 요일별로 만든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월요약국, 수요책방, 목요극장, 토요산책, 일요식당’으로 라임을 맞춘 프로그램들은 사실 프로그램 이전에 오랜 관계, 우직한 사람들이 있었다. 월요약국의 경우, 동네에서 약국을 하는 약사 주민이 찾아와 자신도 무언가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왔다.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또 어떤 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1년의 시간 뒤에, 동네에 사는 약사가 동네 주민이 궁금해하는 건강에 관한 물음에 답해주는 ‘월요약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나왔다. 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먹을 영양제를 못 고르는 사람들을 위한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 등 상담인듯 상담아닌 친근한 수다의 시간으로 풀어냈다. “저희 프로그램에 몇 번 오셨던 분인데 원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 회사에서 털리고나서 약속된 일정을 해낼 에너지가 없어서 취소하고 집으로 왔대요. 집에 와서 밥 먹고 마음 추스리고, 월요약국 행사가 집 근처라서 부담없이 왔다면, 집에서 걸어서 5분 안에 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끝나고 가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분의 얘기가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기민 씨는 이렇게 17717이 가까운 거리에서 상처입은 마음을 보듬어주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모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수요책방은 선문 씨가 2009년부터 수집한 ‘뿌리깊은 나무’ 잡지를 읽는 모임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고(故) 한창기 선생이 1976년 3월에







발행한 잡지로, 한자 표기와 세로쓰기가 일반적이던 시대에 한국 최초로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 편집을 한 획기적인 잡지였다. 선문 씨는 창비에서 출판한 ‘특집! 한창기’(저자 강운구) 책을 읽다가 편집자의 말에서 “한창기의 생각과 ‘젊은 그들’의 생각이 이 책을 통해 조우하여 사랑을 나누기를 바랐다. 그것이 폭발적 사랑이어서 장차 ‘소생’을 낳기까지 한다면 경사스런 일일 것이다.” 라는 문장이 가슴에 남았고 그 ‘소생’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전국의 헌책방과 경매 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뒤져 ‘뿌리깊은 나무’ 전권(53권)을 수집하고 2013년도부터 읽기 모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읽는 방식을 넘어 ‘뿌리깊은 나무’의 ‘그는 이렇게 산다’ 코너에 나온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다. 또한 매해마다 전시를 열어 ‘뿌리깊은 나무’가 전하고자 했던 문화 정신을 나누고 시민들이 잡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전시에서는 17717의 공간 안에 온돌 마루를 만들고 방석을 깔아 잡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읽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인디서울2016’과 함께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목요극장’, 성북동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야생화를 찾아보고 그림과 사진으로 남기는 ‘토요산책’을 진행했다. 17717은 ‘뿌리깊은 나무’가 그러했듯, 한 사람의 기획을 넘어 공간 밖으로 시간 너머로 새 가치를 뽐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매처럼 남은 프로그램들과 이곳에 들러 새로운 마음을 다지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증한다.

진득함이라는 무게가 지탱하는 것들

“거대 담론 못지않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발견한 소소하고 하잘 것 없는 것들이 지닌 가치를,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책자로 찍어내어 돌려 읽는 행위가 뜻하는 바를 우리는 확신한다. 이 잡지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잡지를 만든 우리의 삶은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 잡지를 읽는 분들의 삶이 조금은 더 따뜻해졌기를 소망한다.”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8호 편집 후기 중에서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북동천’에서는 2013년도부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기민 씨는 편집위원장으로 선문 씨는 디자이너로 함께하고 있다. 식당, 카페 등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방문하는 공간들이 배포처인데, 배포처마다 ‘성북동천’ 글자를 새긴 나무 현판을 제작해 달았다. 선문 씨는 ‘어떻게 하면 성북동의 모든 가게 앞에 보기 좋게 어울리며 잘 보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두 달동안의 많은 착오와 고민을 거쳐 만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선문 씨가 고민을 자처하는 이유가 뭘까? 그는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알게된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활동하면서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은 게 제일 소중한 것 아니었나...” 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가 전시를 할 때면 주변 식당에서는 돗자리를 쓰라고 내어주시고, 주민분이 오래된 가구를 빌려주시고 전시 후에 선물로 주시기도 했다. 17717이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자 건물을 관리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여는 행사 때,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떡집에서 떡을 맞추어 보내오며 마음을 전해왔다. 그렇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동네 안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 선물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 애정을 가져야하는 고민이 생긴 이유다.

“사람들에게 공간은 내 마음과도 같은 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가꾸니까요. 그래서 폐쇄적이기도 해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개방적일 수 있는 거고요. 폐쇄적이라는 건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는데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는 없는.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관계없이 쓰고 싶으면 스타벅스에 가면 되겠죠.” 선문 씨는 누군가의 공간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오는 일과 같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오는 것 자체가 안부를 물으러

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사람에 대해 묻자, 기민 씨는 “한번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을 못하지만, 또 오는 사람은 항상 기억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간을 운영하며 사람의 ‘진득함’에 집중하게 되었다. 공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고가지만 그 가운데 진득하게 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의 진득한 마음에 정말 고마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진득함’이란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무게를 잡고 있는 공간의 성질과 닮았다. 기민씨는 “우리가 계속 있어야 진득한 사람도 만나는 건데, 우리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계속 떠돌고 부유하는 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고 그게 안정이 되어야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도 안정된 바탕 안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밖에 없구나. 빛을 내서라도 건물을 사야 하는건가 고민하게 돼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니까요.” 라고 말했다. 사람이 그곳에 머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경치가 좋아서, 예술가가 많아서, 조용해서, 맛집이 많아서 등등. 그 가운데 이들이 이곳에 머무는 이유는 바로 여기가 터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사는 동네,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터전을 지키고 싶어서 모이는 것이 아닐까. 

※ 이 글은 「2016청년활력공간 우리동네 무중력시대」 인터뷰 사례집에 실린 글입니다.

-
장혜영은 온 몸으로 쓰고 싶은 사람이다. 삶으로 메시지를 쓰고 싶어 캠페인을 만들고 글을 쓴다. 마음에서부터 환경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에코 라이프 매거진 <green mind>를 창간했고, 장애를 만드는 건 사회적 환경이라는 생각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리동네 작가를 소개합니다

북정마을을 담다

임상희

“The last moon”

하늘과 맞닿아있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성북동의 북정마을
나에겐 낯설지만 익숙한 “The last moon”

어쩌면 가장 서늘다운 모습으로 남은 마을.
그속에 가파른 골목길을 조금 숨차게 걸어 오르는데, 갑자기 경계심을
잔뜩 품은 강아지가 짖어 댔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숙 들이밀었더니 덩
치 작은 개 한 마리가 낯선 얼굴에 갑자기 놀라서 더욱 맹렬하게 짖었
다. 늘 익숙한 마을 사람들의 냄새가 아닌 낯선 이의 발자국 소리와 냄
새에 예민해졌나 보다.
파란 슬레이트 지붕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린채 지켜보고있다. 눈을
마주친 후 이내 관심 없는 듯 사뻐한 발걸음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만다.
낯선이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걸까.?

이렇듯 소소하지만 즐거운 일상의 풍경들이 나의 시선을 유혹한다.

마지막으로...

“성곽과 마을이 아름다운 북정마을 방문을 환영합니다”



Realview_ on the top 72.7x50cm Acrylic on canva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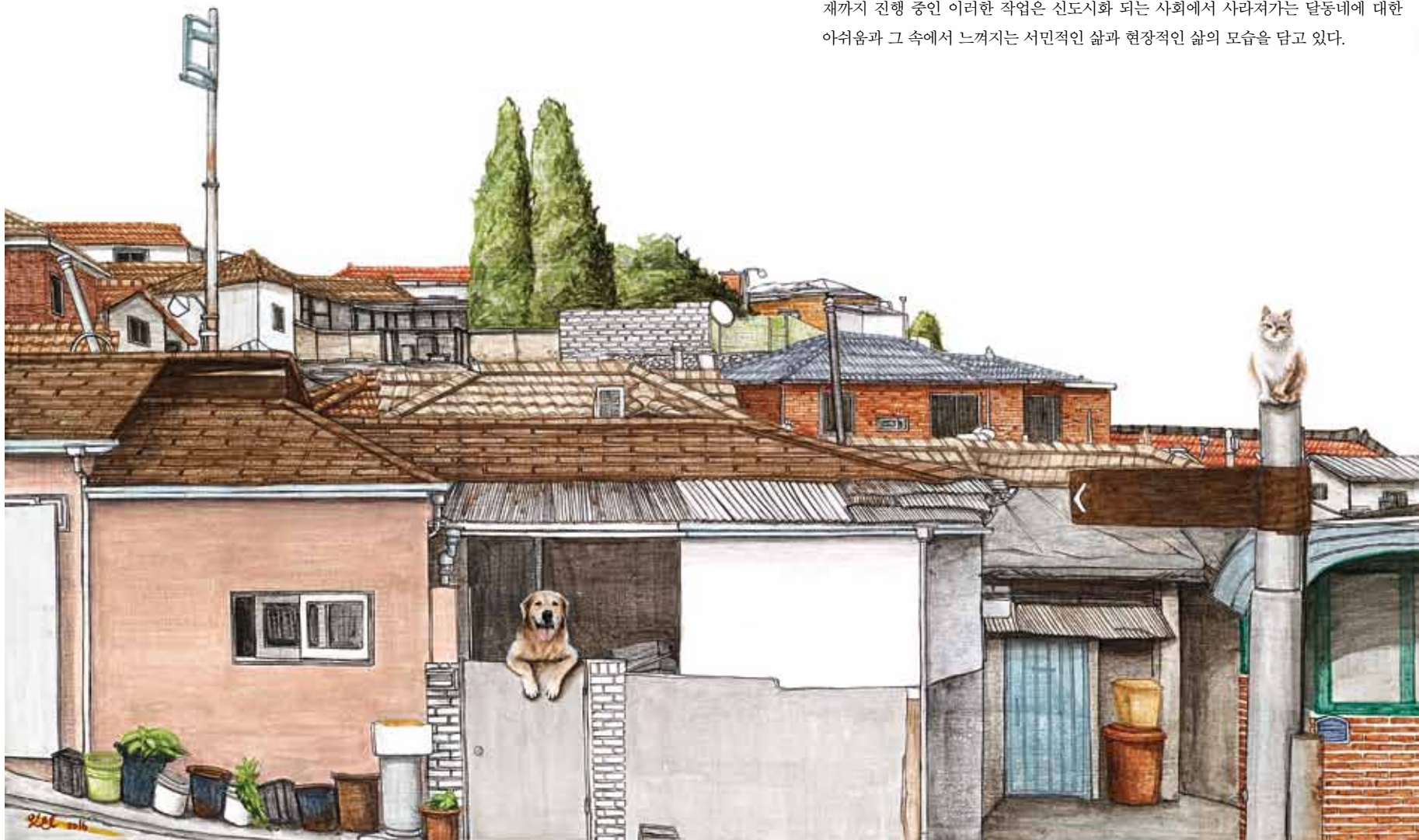


Realview_ 따라오개 90.9x60.6cm Acrylic on canvas 2016



Realview_ 너도 누워 72.7x50cm Acrylic on canvas 2016

-
임상희는 달동네 풍경을 그리는 서양화가이다. 작품에 등장한 풍경은 그곳 주민들만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마치 어릴적 내가 살았던 곳이라는 느낌을 들게 한다. 동시에 그것들에 대해 동질감과 따듯했던 추억들을 떠올리게 한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이러한 작업은 신도시화 되는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달동네에 대한 아쉬움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서민적인 삶과 현장적인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Realview_ 우리 사이 72.7x50cm Acrylic on canvas 2016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성북동 수입멀티숍 garage116-1

조경미

내가 원했던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든 공간입니다.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해야하고 늘 같은 디자인, 또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것에 지치기도 하여 디자인 상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곳, 한눈에만 시선을 잡는 상품매장이 아닌,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유로운 갤러리숍의 이미지를 담은’ 그런 공간 말이지요.

garage116-1의 과거

“2002년 압구정로데오 [in a view] 매장 오픈”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고 고급스러움이 우러나는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 2년 동안 국내외숍 조사와 충분한 자료 수집으로 준비한 브랜드 [in a view]. 직접 섭외한 외국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느낌과 소재의 수준 있는 디자인 생활용품을 갖춘 매장을 압구정로데오에 오픈하였습니다.

당시는 프리마켓 시스템이 없던 때라, 다른 매장과 차별화를 위해 수준 있는 학생, 아마추어 작가, 디자이너 분들을 모집·선발하여 일주일 동안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처럼 프리마켓이 유행하기 전이었고 공예가들이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적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in a view]의 가든프리마켓이 국내 디자이너, 공예가들의 상업적인 판로를 만들어 드리는 장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보람이 컸었습니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브랜드와 상품, 특색 있는 이벤트, 디스플레이효과로”

국내 명품 잡지, 푸드스타일리스트, 공예디자이너 사이의 소문으로 국내 해외 명품잡지마다 [in a view]의 상품이 소개되었습니다. 트렌드를 움직인다는 자부심으로 16년 동안 인테리어 소품숍을 운영해왔습니다.

garage116-1의 새로운 시작

실내 장식 용품, 식기류, 소품 등을 판매하는 성북동 garage116-1은 무대 디자이너이자 공간 이미지 플래너, 해외 구매와 상품관리를 담당자, 일본 작가 관리 및 새로운 상품을 찾는 일과 국내외 디스플레이 및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디자이너 3명이 운영하는 멀티숍입니다.

물건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냐고 물어오시는 분들께 우리는 ‘내가 갖고 싶어 할 정도의 물건, 내 눈에 차는 물건’을 수입한다고 답을 합니다. 소장용 목적으로 우리 매장을 찾아오시는 공



예가, 기자, 스타일리스트, 공간연출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눈에 흡족할 만한 상품을 찾기 위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제품의 마감이라 생각하며 상품을 수입합니다. 품격이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공예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더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arage116-1은 '서울, 마을, 일상'을 주제로 진행된 2012 서울건축문화제에서 성북동 대표 건축매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수의 대사관저가 자리한 성북동의 특성상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준 높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녀가신 분들의 소개로 외국에 있다 한국에 오면 꼭 찾게 된다고 하시면서 성북동 명소라고 말씀해주는 분들도 있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상품을 준비하려 합니다.

garage116-1가 성북동에 오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그렇듯 아이를 낳아 키우며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보니 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 압구정 매장을 정리하고 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쉬움이 커질 무렵, 가족들의 권유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성북동에 자매들이 살고 있어 육아와 일 두 가지를 다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에서 'garage116-1'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서울 중심 상권의 변화한 거리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압구정을 선택하였지만, 새롭게 시작하면서는 외국인 대상의 축제가 많이 진행되고 서울 안에서도 독특한 작은 시골마을 분위기를 지녔으면서도 시내와 가까워 이동이 용이하며 역사적인 명소와 숨은 맛집이 많은 성북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거리로 정비되는 도시 계획에 발맞춰 국내 디자이너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수입상품에 못지않은 좋은 상품을 준비하

여 성북동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디자인을 알리면서도 국내에서 보기 힘든 질 좋은 수입멀티숍으로서 오래 오래 성북동을 지키는 가게가 되려 합니다. ☎

-
조경미 실장은 garage116-1의 막내이다. 국내와 일본에서 패션 브랜드 및 백화점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였으며, 지금은 garage116-1에서 해외 상품 구매 (Buying) 및 관리, 마케팅 및 쇼핑몰과 온라인 디자인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문의 ☎ 02-3296-3854 (일요일 휴무) | 홈페이지 <http://garage116-1.com>



주민 인터뷰 성북동 좋은 선생님

윤경미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친 것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10년차가 되는 선생님입니다. 교육청과 국립 도서관 강연을 통해 학부모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하게 할 수 있다고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불씨 삼아 도전하고 성취하는 기쁨

을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어떤 것에 도전한 후 그것을 성취했을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학습지도를 하면 공부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푸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역시 도파민 분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것이 일부 천재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차와 수준차는 조금씩 있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놓치면 성과가 적긴 합니다만, 가능한 한 어릴 때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 누구나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스스로 공부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꾸준히 맛보고 누린 아이는 살아가며 부딪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좌절하는 일도 적습니다. 이런 아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려면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관심을 두고 관찰하며 적절한 과제를 제시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도전하고 싶고, 또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정확히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너무 쉬워도 또 너무 어려워도 안 됩니다. 즉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이 한명 한명에 맞추어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성북동으로 오시게 되었나요?

가끔 상담 오시는 어머니들도 같은 질문을 하세요. 솔직히 성북동에 자리 잡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언덕길 막다른 골목에 있는 저의 공부방은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고, 특히 아이들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강아지 짖는 소리, 새소리 말고는 소음이 전혀

없는,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와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함께 공부하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요.

저는 아이들이 일기를 쓸 때 날씨를 꼭 관찰하고 쓰도록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의 모양이 어떤지? 흐린 날의 하늘과 맑은 날의 하늘이 어떻게 다른지? 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햇빛이 피부에 닿을 때 느낌은 어떤지? 아이들과 함께 그 감각을 느끼고 글로 옮깁니다. 그런데 시장통같이 학원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대치동 학원가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어 너무 삭막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가 원래 활동하던 대치동을 떠나 성북동에 자리를 잡은 이유일 거예요.

감각을 통해 세상을 느끼는 것은 학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인지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감각은 세상을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나누어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줍니다. 이렇게 자기 감각으로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아이는 사고력도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공부할 때도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지 않고 주어진 정보들을 스스로 사고하여 처리합니다. 이곳 성북동 공부방은 작은 소리에도 집중할 수 있고, 나무와 바람, 구름과 해 등 주의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각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좋은 선생님은 무엇을 가르치나요?

10년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최근에는 제 교육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기본기를 쌓아주는 선생님입니다.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바로 독해력과 어휘력입니다. 교과서 정도는 혼자 읽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독해력과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휘력 수업은 천자문을 기반으로 해서,

한자와 한자어, 영어, 일어, 불어까지 5개국 어휘를 다양하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따라옵니다. 7세부터 12세까지가 뇌의 언어신경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는 꼭 필요한 자극이기도 합니다.

물론 글쓰기 수업도 하고,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역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예습 복습하는 방법, 학교 수업 듣는 요령과 시험 준비하는 요령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함께 꿈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사춘기와 함께 정체성을 찾는 시기가 오는데, 이때에는 공부하는 이유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 삶을 위해 공부를 한다는 마음이 들면 스스로 공부합니다. 어쨌든 이때를 위해서 기본기를 쌓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를 만나 공부를 하고 싶어도 바탕이 너무 없으면 그것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요즘 학부모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등 뭔가 일찍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습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충실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 시기에 필요한 기본기를 잘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성북동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아직은 성북동에서의 수업보다는 외부 수업이 많지만, 이웃 같은, 든든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고민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

※ 이 글은 자문자답 형식의 셀프 인터뷰입니다. 필자이신 윤경미님께서 스스로 인터뷰어·인터뷰이가 되어 작성해주신 글입니다.

-

윤경미는 아이들이 공부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을 <일기는 사소한 숙제가 아니다>라는 책에 담아내기도 했다. 지금은 이곳 성북동에 평화로운 공부방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며,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9-2

문의 ☎ 02-743-7441



주민 기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곡경문

올해 2월 26일은 성북동에 양리동물병원을 개원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북동 특유의 서정적인 분위기에 매료된 저는 정신없이 바빴던 준비기간을 거쳐 병원 문을 열었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신나는 1년을 보냈습니다.

성북동에서 지낸 1년의 시간 동안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병원의 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성북동에 와서 정말 많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 저에게 새로운 세계의 눈을 뜨게 해준 분들은 유기동물들을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반려동물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1.8%에 달하는 457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버려지는 반려동물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려동물 산업, 이른바 ‘펫코노미(Pet-conomy)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에 몸담고 있는 저도 이렇게나 많은 유기동물들이 생겨나는지 몰랐습니다. 봉사자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비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수는 매년 8만 마리에 이른다 고 합니다. 떠오르는 반려동물 산업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보호소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 보호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부분은 늘 가려져 있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마련입니다.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의 40% 가량은 시설 안에 퍼진 감염병 및 여러 질병들로 인해 생을 마감하며, 다행히 거기서 살아남은 동물들도 평균 12~23일이 지나면 안락사됩니다.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 보호소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들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세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아지는 걸까요? 원인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던 집안이나 개인의 사정, 잘못된 교육이나 방치로 사납게 돌변한 아이들, 질병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 사람의 무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반려동물을 입양 할 때 품종견, 품종묘를 선

호합니다. 병원에서 분양을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아이를 원하시는 지 물어보면 늘 비슷한 대답들을 듣습니다.

“예쁜 아이요.”

“최대한 작고 귀여운 사이즈는 어떤 종이에요?”

“털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젓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똑똑해야 해요.”

저희는 그런 대답들을 들으면 웃음이 새어 나옵니다. 차라리 강아지 로봇을 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지요. 내 뜻대로 길러지는 자식 없듯이 반려동물 또한 원하는 대로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키우다 아파서 병들면 버리고, 너무 젓어도 버리고, 배변훈련이 되지 않아 버리고, 애기 시절 심한 저지레¹⁾를 참지 못해 버리고, 털이 많이 빠져서 버립니다. 유기동물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참 허무하고 슬퍼집니다.

유기동물들의 평균 수명은 15~20년, 짧지 않은 이 시간을 철저히 책임져주어야 하는데 그 정도 각오도 하지 않고 입양하셨나요, 아니면 입양하실 계획인가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먹는 법, 걷는 법, 말하는 법 등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모든 걸 가르쳐야 하듯이, 반려동물도 배변하는 법,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법,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법, 먹는 법, 새로운 동물친구들을 만나는 법 등을 보호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빼놓아지는 아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입양하는 분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겠지요.

1) 일을 저질러 말썽이나 문제가 되게 하는 것

이렇게 생겨난 많은 유기동물들은 철저히 방치된 채 보호소에서 자신을 버린 보호자가 언젠가 데리러 올 거라 믿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씩 기다리게 됩니다. 그나마 그 사이에 누군가 눈에 띄어 재입양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방치된 채, 아파서 쓰러지면 그때서야 치료 차 보호소를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마저도 기뻝차게 운이 좋은 편이죠. 쓸쓸히 아픔 속에서 혼자 버티다 죽는 아이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보호소 안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믹스견들은 품종견들에 비해 입양 기회나 치료의 기회가 더더욱 오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아직도 애견분양샵에 가서 예쁜 아이, 혈통 좋은 아이를 찾으실 건가요? 그러다 또 마음에 안 들면, 병들면, 키우다 힘들어지면 버리시겠조?

제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만난 값진 인연들 중에 저희조차도 박수를 쳐드리는 분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저희도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었고, 봉사 과정에 참여하여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 많은 유기동물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깰 수 있었습니다.

유기동물들도 그 어떤 반려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랑스럽고 누구에게나 무한한 애정을 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치료차 병원에 와서 처음 본 우리에게 무한정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고, 처음 하루이틀은 낯을 가리다가도 매 끼니를 챙겨주는 병원 식구들이 출근하면 방방 뛰면서 인사를 하며 안아달라 만져달라 애교를 부립니다. 이렇듯 무한한 애정 공세를 받다보면, 이 아이들이 왜 버려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한편으론 잔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우리인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치유받을 정도로 사랑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반려동물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

람들의 필요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 사람의 욕심으로 키워지다 버려진 아이들, 무책임한 사람들로 인해 병들어 버려진 아이들을 이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 오히려 사비와 시간을 들여 - 보호소에서 청소, 미용, 치료 및 이동 등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시는 분들 덕분에 유기동물들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고, 열악했던 보호소 환경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분들이 있기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 지금은 웃으면 지내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기운이 빠진다고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10마리를 입양 보내면 또 새로운 5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새로 보호소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유기동물의 개체수와 부족한 일손으로 항상 힘든 상황이지만, 끔찍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언제나 온 힘을 다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현실을 바꾸는데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려동물을 키워볼까 생각하는 중이라면, 사람의 욕심과 무분별한 분양업자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을 찾기보다는 먼저 유기동물 단체에서 아이들을 만나보심이 어떨까요? 이 세상에는 먹이기 위해, 버려지기 위해 태어난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한 아이의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내고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

-
곡경문은 일년 전 성북동에 두 번째로 생긴 양리동물병원의 수의사이다. 동물보호단체 봉사자들과의 인연으로 산업화된 반려동물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동물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게 되었다.

편집 후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기민

작년에 7·8호 편집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마을잡지에 실을 글을 써줄 분을 찾아 청탁하고 글을 받는 과정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봐야 이제 2년차, 그것도 올해는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그저 전임자로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풋내기 편집위원장 직무대행이다 보니 작년이나 올해나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잡지 만드는 일로 생계를 꾸리며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더 좋은 글을 써줄 수 있는 필자를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세상 끝까지라도 갔을까요? 보내준 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좋은 글이 나올 때까지 쓰고 쓰고 또 쓰게 하며 닦달을 했을까요? 그래도 도저히 답이 없다면 그냥 그 글을 포기했을까요? 가보지 않고선 알 수 없는 일이라 단언하기 저어하지만, 그냥 잡지가 아니라 ‘마을잡지’이므로, 그것도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이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글을 가다듬어 종국에는 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 잡지의 편집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가늠하기에 앞서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 - 동네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활자로 기록하고 정리하여 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잡지 간행 과정에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들고 또 들 때마다 떠올려봅니다. 명문이든 잡문이든, 삶의 정수를 깨우치게 해주는 글이든, 생

활 정보나 광고든,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글이든, 동네에 첨예한 갈등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글이든,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어떤 이의 삶을 깃뚫거나 누군가의 존재를 배제하거나 혹자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몹쓸 것만 아니라면 그 어떤 글의 값어치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잘 하고 싶고 잘 만들고 싶다는 욕심보다 앞에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욕심이 다른 그 어느 무엇보다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마을잡지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잡지가 아닌,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잡지가 되고 마는 것일 테니까요.

특별함이 잘못이라거나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함을 좇는 마음이 우리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먹었던 “빠뚫어진 글씨도, 앞뒤가 맞지 않는 비문도, 두서없고 맥락을 가늠하기 힘든 글도 동네 주민과 우리 이웃이 적어낸 이야기라면 사람들과 나눌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던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전과 같지 않음이 분명하다면 그 때는 멈춰서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까닭입니다. 적어도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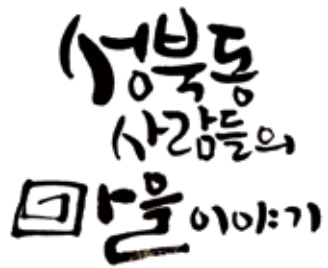
그러니 부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9호를 비롯해 그 동안 간행된 잡지 가운데 혹여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더 잘하기를 기대하고 바랐다면, 그 기대와 바람이 충족되지 않아 못내 아쉽고 안타까웠다면, 성에 차지 않아 못마땅했다면, 유독 부족함이 눈에 띄어 신경 쓰였다면, 발행처도 편집위원회도 필자도 모두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범부인지라 범상치 않은 잡지를 만들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해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동네 사람으로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을 수 없어 지면을 열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었음을 유념해주시고 또 해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만약 일말의 석연치 않음이 마음에 남아 불편하다면 그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김기민은 성북동천의 만년 총무이다. 2011년 조용하고 한적하며 평화로운 동네를 찾아 카페 티티카카를 열면서 성북동과 인연을 맺었고, 경영 수완이라고는 1도 없어 지난 2015년 문을 닫았으면서도 여전히 성북동에서 동네 주민이자 누군가의 이웃으로, 한편으로는 지역의 (자원)활동가로 살고 있다. 심지어 그 카페(였던) 공간을 이제 ‘동네공간’이라는 이름의 동네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2017 마을미디어활성화 주민지원사업〉
매체형 분야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간행되었습니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9호 〈비매품〉

2017년 7월 27일 발행

편집 |
상임 편집위원 김기민 박진하 장영철 최성수
비상임 편집위원 김철우 김현주 오예주
교정·교열 | 최나현

디자인·사진 | 17717(김선문)

펴낸곳 | 성북동천
기획·편집 |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
후원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동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12-6, 1층 동네공간
seongbukdong.town@gmail.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070. 8871. 5998